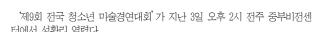






'제9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가 지난 3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 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한국청소년동이리 전주시연맹 주최, 전주매일신문사-JJC전북지방자치 TV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조봉성 대표를 비롯한 200여명이 참 석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1~2부로 나눠 열렸다. 1부에서는 식전행사로 개회선언을 시작 으로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축하공연 에 이어 본격적으로 참가자들의 마술 경연 및 시상식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명웅 한국동아리연맹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 김영재 동아보건대학교 마술학과 교수, 소경희 (사)국제문화예술협회 전임강사가 심사위원으로 나서 청소년들의 마술 하나하나에 박수를 보내며 공정한 심

김승곤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갈고 닦았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꿈을 키워가는 잔치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은 매직제이 소속 이승주군이 차지했다.

이어 최우수상에 매직제이 소속 이승연군, 우수상에 구로청소년수련관 마 술동이리 드라마 소속 민준서군, 특별상에 개인으로 참여한 최진호군, 장려 상에 원광중 김시준군, 인기상에 매직제이 소속 이도영군이 각각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이승주군은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나에게 있어 이 번이 마지막 청소년 대회였다."며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것은 소속 팀인 매직제이의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더 배워서 더 큰무대에 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봉성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마술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인 정받고 있으며, 기원전 5000년 경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도 발견 될 만큼 오 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며 "마술인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마술장르 개발 /장은성 기자 에 한층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일신문人



프로마술사의 열띤 축하공연



지방자치꾸 대학마술학과 신문 업무국



전주시연

연맹, 전주

전주시

부비젼센터



▶ 최우수상 - 이승연



멋진 묘기를 선보이

고 있는 참가자들.

▶ **우수상** - 민준서



▶ **특별상** - 최진호



▶ 장려상 - 김시준



▶ 인기상 - 이도영

